Journal of the Humanities

인문연구

제79호 / 2017. 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소 임원

소　　장: 손승회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부 소 장: 박승희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운영위원: 백승대 교수(영남대 사회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불어불문학과)
서인석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송병렬 교수(영남대 한문교육과)
이정희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이현진 교수(영남대 유아교육과)
정병석 교수(영남대 철학과)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연구교수: 박세진(영남대 독어독문학과)

연 구 원: 구소영(경북대 사학과)
김세욱(영남대 철학과)
김현주(영남대 중어중문학과)
맹　유(영남대 중어중문학과)
박승주(영남대 일어일문학과)
손미란(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정남희(영남대 동아시아문화학과)
정호윤(영남대 동아시아문화학과)
최은형(영남대 역사학과)

편집간사: 최은형(영남대 역사학과)
행정담당: 정호윤(영남대 동아시아문화학과)

목 차

- 편집노트 ····· 편집위원회 / i

【특집 : 문화대혁명의 재조명】

- 문화대혁명 속 타자(他者) - 연변을 중심으로 - ····· 정호윤 / 1
-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과 지청(知青)의 도시 귀환 투쟁
  ····· 손승회 / 29
- 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의 파벌투쟁
  - 호남성(湖南省) 도현(道縣)을 사례로 - ····· 구소영 / 65

【일반논문】

-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 의식 연구
  - 한센병 문학을 중심으로 - ····· 오현석 / 101
- 현대 놀이의 타락과 무용성에 대한 고찰
  - 영화 <종이달>과 <족구왕>을 중심으로 - ····· 신성환 / 135
- 애국가(愛國歌)의 신화성(神話性)과 반신화성(反神話性)
  ····· 이상우 / 169
- 윤치호(尹致昊)의『우순소리』저본 연구 ····· 최선아 · 김양선 / 197
- 루만의 체계이론 재고찰을 통한 기능체계로서 공론장 연구
  ····· 김태근 / 229
- 성서와 도상 자료로 본 고대 이스라엘의 태양 숭배와 야훼 신앙
  ····· 강승일 / 285

【휘 보】

【편집노트】

이번 호는 6편의 일반 논문 이외에 특집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집은 2017년 1월 24일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 "문화대혁명의 재조명"(1부 역사로서의 문화대혁명, 2부 문화대혁명의 현재적 의의)에서 발표된 총 7편의 논문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친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호윤 선생의 「문화대혁명 속 타자(他者)-연변을 중심으로」, 손승회 교수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과 지청(知靑)의 도시 귀환 투쟁」, 구소영 선생의 「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의 파벌투쟁-호남성(湖南省) 도현(道縣)을 사례로」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특집 학술대회를 구상하고 한창 준비하던 2016년은 문화대혁명 발발 기념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각국에서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이 단순히 과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인문과학연구소는 문학, 역사, 철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문화대혁명을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특히 기존의 권력투쟁설이나 이데올로기적 관점 그리고 사회충돌설 등을 넘어, 열린 관점에서 문화대혁명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합니다. 한편 학술대회 발표에 참여했으나 이번에 게재되지 못한 논문들은 「독일의 68운동과 자립적인 결실」, 「성별 상징의 의미에서 본 중국의 '상흔문학'」, 「마오쩌둥의 변증법 모순과 문화대혁명」, 「시론: 문화대혁명의 현재적 의의」 등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술대회를 빛내준 발표자·토론자·사회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집 논문 외에 이번 호에 투고된 논문은 총 15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편의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엄선된 셈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논문 테마의 다양함입니다. 지금까지 『인문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을 일별하더라도 오현석 선생님의 「한센인의 유랑과 정착에 대한 불안의식 연구」, 이상우 선생님의 「애국가(愛國歌)의 신화성(神話性)과 반신화성(反神話性)」, 강승일 선생님의 「성서와 도상 자료로 본 고대 이스라엘의 태양 숭배와 야훼 신앙」은 유독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3편도 논문의 완성도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어 이번 호를 매우 값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호에 게재되지 못한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송구함을 전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인문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리며, 편집의 변을 가름합니다.